

지엠, “흑자전환 계획 충실히 이행… 노조도 약속 지켜라”

카허 카젠 사장 ‘트래버스’ 발표

쉐보레 대형 SUV ‘트래버스’ 공개 라인업 확장으로 고객선택폭 ↑ 사업 다각화로 일자리 창출 집중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국지엠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들어간다.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상황에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래버스 등 미국산 수입 쉐보레 모델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며 고객선택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법인이 분리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잇따라 성과를 기록하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3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대형 SUV 트래버스 발표자리에서 “작년에 확정된 미래 계획에 따라 했던 약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이 3일 강원도 양양에서 쉐보레 정통 대형 SUV ‘트래버스’를 소개하고 있다.

에서 차세대 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로 수출 물량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그룹에서 차량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판매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년간 15차종의 신차와 부분 변경 신차 출시계획을 발표한 한국지엠

쉐보레는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스파크를 비롯해 이쿼녹스, 더 뉴 말리부, 더 뉴 카마로 등을 출시했다. 올해는 수입 모델인 콜로라도와 트래버스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수입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지엠은 대규모 AS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과거 대우차 시절부터 생산·판매·사후관리 역량을 30년간 쌓아온 한국지엠은 10개의 직영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AS 네트워크 확보하고 있다. 기존 수입차 브랜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AS 비용과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지엠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다.

카젠 사장은 “400여개 이상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관리의 경쟁력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다각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GMTCK는 지난해 배정받은 차세대 SUV 및 CUV 개발을 이끌며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차량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100명 규모의 엔지니어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도 진행했다. 또한 국내 공장(부평·창원)에서 글로벌 신형 SUV 및 크로스오버 SUV(CUV) 차량 생산을 하며 국내 완성차 업체로서 입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카젠 사장은 올해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카젠 사장은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은 (회사 전체에) 불행이다”며 “노조는 작년 중대한 전환 시기에 결정한 단체협약상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카젠 사장이 언급한 한국지엠 노사간 단체협약 약속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되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조는 올해 사측에 기본급 5.65% 인상, 격려금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 상여금 165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지난해 단체협상을 통해 없애기로 한 유류비 지원이나 차량 구입 할인 등도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또 정년도 65세로 늘려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있다.

카젠 사장은 “회사는 흑자전환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매우 견고한 미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직원도 회사의 성실한 약속이행에 대해서 잘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UV LED 살균기능 확대 적용 (자외선)

세탁기·스타일러 등 순차적 탑재

LG전자가 일부 제품에 적용했던 자외선(UV) LED 살균기능을 다른 생활 가전에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현재까지 냉장고, 정수기, 가습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일부 제품에 UV LED 살균기능을 적용했다. 향후 세탁기, 스타일러, 광파오븐 등에 UV LED 살균기능을 순차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LG전자는 “국내 가전업체 가운데 UV LED 살균기능을 생활가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UV LED 살균기능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곳에 화학물질 대신 자외선을 쬐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 등 유해세균을 친환경적으로 살균한다.

LG전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UV nano

LG전자가 이번 달부터 ‘UV LED’ 살균기능 명칭을 ‘UV나노’로 사용한다. /LG전자

(KTR), TÜV라인란드(TUV) 등 여러 인증기관에서 UV LED 살균기능의 효과를 확인했다. 인증기관 실험 결과 LG전자의 냉장고, 정수기, 가습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탑재된 UV LED 살균기능은 유해세균을 99% 이상 살균했다.

LG전자는 고객들이 UV LED 살균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이 기능을 ‘UV나노’로 사용하기로 했다. UV나노는 UV LED와 자외선의 파장 단위인 나노미터의 합성어로 아주 작은 세균까지 꼼꼼하게 살균해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LG화학-美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파트너십’

OLED 핵심, ‘발광층’ 재현 성능 극대화

LG화학 ‘호스트’·UDC ‘도판트’ 제공 두 물질간 최상의 조합 찾아 제품개발

LG화학이 미국 소재기업 유니버설 디스플레이(UDC)와 함께 OLED 핵심 물질인 발광층의 성능 개선을 위해 손을 잡는다.

LG화학은 미국의 UDC와 차세대 OLED 발광층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LG화학은 발광층 원재료 중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저전압, 장수명 호스트(Host)’를, UDC는 ‘고효율, 고성능의 인광(燐光)도판트(Dopant)’를 서로 제공해 두 물질간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특정 고객사를 위한 최고의

고색재현 성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OLED는 전자(-)와 정공(+)이 움직이는 공동층, 실제 빛을 발하는 발광층 등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돼 있다. 발광층이란 공동층에서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결합해 빛을 내는 핵심물질로, 특정색을 발광하는 ‘도판트’와 도판트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스트’라는 재료로 구성된다.

LG화학이 개발해온 호스트는 낮은 전압에서도 전하 수송이 가능해 수명이 우수하고, UDC의 인광 도판트는 뛰어난 효율, 고색재현, 장수명이 특징이다. 두 물질이 합쳐질 경우 발광층의 고색재현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유지영 LG화학 첨단소재사업본부 부사장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두 회사가 협력하는 만큼 시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OLED 시장 확대에 맞춰 고색재현 성능이 대폭 향상된 발광층을 생산해 고객에 적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브 아브람슨 UDC CEO는 “OLED 패널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품사양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LG화학과의 협력을 통해 고성능의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우 기자 yw964@

삼성전자, 5G 통합 SoC ‘엑시노스 980’ 공개 (시스템 온 칩)

첨단 8나노 핀펫공정 적용

삼성전자가 4일 첫 5G 통합 SoC(시스템 온 칩)인 ‘엑시노스 980’을 처음 공개했다. 연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엑시노스 980은 5G 통신모뎀과 모바일 AP를 한데 묶은 제품이다. 전력 효율을 높이고 제품 면적을 줄여 모바일 기기 설계 편의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980을 첨단 8나노 핀펫 공정을 적용해 만들었다. 2G에서 5G까지 이동통신 규격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고성능 신경망 처리장치(NP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980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U)도 내장했다.

통신속도는 5G에서 2.55Gbps, 4G에서는 최대 1.0Gbps까지 지원한다. 이 중연결 상태에서는 최대 3.55Gbps, 최신 와이파이 규격도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삼성 대표제품을 조화롭게 구성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도 브랜드 쇼케이스 공간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북부에 ‘삼성 킹스크로스’를 개관했다고 4일 밝혔다.

킹스크로스 지역은 산업혁명 시기 교통과 산업 중심지로, 최근에는 문화명소이자 글로벌 IT 기업들이 모인 곳이다.

삼성전자는 북런던 최대 쇼핑단지인 ‘콜 드롭스 야드’ 쇼핑몰 최상층에 1858㎡ 규모 공간에 삼성 킹스크로스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쇼케이스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와 IT제품을 융합한 마케팅 활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 북부에 쇼케이스 공간 삼성 킹스크로스 문을 연다. /삼성전자

동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 킹스크로스는 가전 매장보다 차별점을 뒀다. 갤러리와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 삼성 대표 제품을 조화롭게 구성했으며, 연결성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콕핏’도 설치했다. 하만과 협업해 만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에서 집에 가전이나 전등을 켜거나, 집에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등 ‘카투홈’과 ‘홈투카’ 서비스 경험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 런던에 브랜드 쇼케이스 ‘킹스크로스’ 개관